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광일리그 쏘울스토리·무등리그 자연환경 우승



29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에서 우승한 쏘울스토리 선수들이 윤정승감독을 헹가래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쏘울스토리, W웨딩 추격 딛고 13-10 승…자연환경, 로즈스나이퍼스에 17-2 대승

광주·전남 사회 야구인인들의 가을축 제'제7회 아로마라이프배 광주·전남사회 인 야구대회가 29일 결승경기를 끝으로 막

단판승부로 승패가 갈리는 경기이였지 만 각기 개성있는 팀 색깔로 펼치는 수준 높은 경기에 한국시리즈 못지 않는 흥미진 진한 모습들이 전개됐다.

지난 9월 3일 개막해 32강전을 시작으로 2개월여간의 대장정을 선전을 펼친 무등 기 야구대회는 광주일보사와 아시아문화 가 주최하는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격려사에서 "오늘의 결과는 우승팀 뿐만 아니라 32개 출전팀 모두가 만들어낸 영광의 자리다. 2 개월여간의 기나긴 여정동안 분투해준 선수들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사장은 이어 "야구는 가정과 직장에 화목과 친목을 도모해 주는 가교제"라며 "사회인 야구의 중흥을 위해 앞으로도 광주일보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주 북구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치러진 결승경기에서는 쏘울스토리가 광 일리그에서, 무등리그에는 자연환경유한 회사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쏘울스토리는 W웨딩컨벤션과의 광일 리그 결승에서 접전 끝에 13-10으로 승리 했다.

경기초반 쏘울의 대량득점으로 쉽게 승부가 갈릴것으로 보였으나 7회 W웨딩의 타선폭발로 막판까지 승리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1-2로 뒤지던 쏘울은 2회초 이동혁의 안 타와 박영서, 김윤학의 볼넷 출루로 주자를 모두 채우며 득점찬스를 만들었다. 이후 유진우의 내야안타와 김남국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따내며 앞서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이닝에서 유재민이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주자 모두를 불러들여 3점, 이어 윤정승의 2루타 1점을 뽑아낸 쏘울은 임진강, 박영서의 연속안타로 2점을 챙기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갔다.

쏘울은 5회에 3점을 더 추가했다. 이어 6

■광일리그

쏘울스토리
₩웨딩컨벤션
실리투수:양진(쏘울스토리)

■무등리그

자연환경 6 7 0 4 0 0 17 로즈스나이퍼 0 0 0 1 0 1 2 △승리투수:남준성(자연환경)

회에는 2사 후 대타로 나선 김용수가 안타로 출루해 유진우 타석 때 2루와 3루를 연달아 도루에 성공했다. 뒤이어 W웨딩의송구 실책까지 더해져 득점에 성공했다.

선발투수 이송훈의 경기초반 7연속 볼 넷과 연속해 얻어맞은 안타 등으로 대량실 점으로 위기를 맞은 W웨딩은 3회와 5회 각각 1점과 2점을 얻어내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갔다.

W웨딩은 7회말 1사 1루 타석에 들어선 서정길이 만들어낸 2루타로 1점, 이후 박 경민, 박성용 만루때 김민수가 우측 담장 을 때리는 3루타를 때려내며 3점을, 이어



29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에서 우승한 자연환경 야구단 선수들이 정상현 감독을 헹가래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진 김봉민 타석 때 폭투로 3루주자를 불러들이며 1점을 추가, 반전의 기회를 노렸지만 쏘울을 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쏘울 마무리 투수로 나선 김태호는 예선 에서부터 고른 활약으로 대회 MVP로 선 정됐다.

자연환경과 로즈스나이퍼스가 경기를 펼친 무등리그에서는 자연환경이 17-2 대 승을 거뒀다. 자연환경은 1회부터 거침없 이 방망이질을 해대며 경기를 압도하기 시 작했다. 1회초 1번타자 양건우를 시작으로 전 타자에 걸친 안타행진이 이어져 2회까지 13점을 뽑아내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시 켰다. 여기에 4회 다시 4점을 추가해내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로즈는 5회 단 1점 을 뽑아낸 후 7회말 무사 2, 3루 때 대타 김 진호 희생타로 1점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자연환경은 경기 내내 선발투수 남준성 의 완급조절과 수비진들의 안정된 수비로 경기를 꾸려나갔다.

아로마라이프가 함께한 이번 대회는 광 주시야구협회 주관으로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가 후원했으며 KIA 타이거 즈의 협찬으로 치러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회인야구 발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학재 아로마라이프 회장

지난 2014년부터 3년 째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학재(60) (주)아로마라이프회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야구인들과 사회인야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사회인 야구의 애정을 드러냈다.

이회장은 "특히 사회인 야구는 우승, 준우승을 떠나 모든 선수와 가족들이 함 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며 "답답 한 회사나 조직 등에서 벗어나 넓은 운 동장에서 힘껏 공을 던지고 받다보면 끈 끈한 조직력과 동료애가 생기고 건강에 도 도움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야구뿐 아니라 이회장의 나눔정신은 지역사회에서 소문 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1억원 이상의 고객 개인 기부자들의 모인인 '아너 소사이어 티(Honor Society)에 광주에서 33번째



로 가입됐다. 부인 이광은(59)(주)메르시 대표도 그와 함께 나눔을 전파하고있다.

부부는 10년 가까이 연말이 면 주변의 소외

된 이웃들을 위해 연탄과 쌀을 배달하고, 직원들과 함께 김장나눔 봉사를 펼치는 등 지역 나눔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회장은 또 "올해 7회째를 맞는 무등 기 사회인 야구대회는 그동안 지역 사회 인 야구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다"며 "아로마라이프도 앞으로도 사회인 야구 에 더욱 지원해 호남시민 화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일리그 쏘울스토리

"선수들 막강 화력 믿었다" 윤정승 쏘울스토리 감독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우리 선수들을 믿었습니다."

광일리그에서 W웨딩컨벤션을 상대로 접전 끝에 무등기 정 상에 우뚝 선 쏘울스토리 윤정승(50)감독은 "경기 내내 선수들 을 무한신뢰했다. 끝까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 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 감독은 "경기 후반 위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우리선수들

이 경기에 집중해 승리 할수 있었다"면서 "결승무대에 부담감

은 있었지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선보인 선수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6년 창단한 '쏘울스토리'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들이 서로 이기 투화해 만드해 만드 11년 저톨이 팀으로 유정

들이 서로 의기 투합해 만든해 만든 11년 전통의 팀으로 윤정 승 감독은 7년간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윤 감독은 과거 쌍방울 레이더스 창단 멤버로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의 1년 선배다. 윤 강독은 "서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경기 하경기

윤 감독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경기 한경기 똘똘 뭉쳐 무등기 대회에서 우승 할수 있었다. 내년에는 대회 2 연패를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승팀 감독·최우수선수 인터뷰

"체력 되는 한 계속 야구하겠다" MVP 투수 김태호



"해태 출신 김무종이 뛴 무등경기장에서 우승도 하고 MVP도 받으니 기쁩니다" 5회에 마무리로 등판한 쏘울스토리의투수 김태호(48)가 팀의 3이닝을 마무리지으면서 광일리그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준결승전에서는 완투를 하는 등 김태호 는 2개월여간 치러진 대회기간 동안 쏘울팀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선수다. 이날도 5회에 등판해 선전한 김태호는 "변화구가 잘 먹히질 않아 경기 막판에 점수를 많이 내줬다. 하지만 야수 들을 믿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인 야구경력만 20년이 넘는 김태호는 택시운전을 하면 서도 틈틈히 시간을 내어 런닝과 웨이트트레이닝 등으로 체력 관리를 해오고 있다.

김태호는 "체력이 되는 한 계속해서 야구를 하고 싶다. 내년 에도 쏘울스토리의 팀원들과 무등기 대회에 참여해 2연패를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끈끈한 팀워크로 3연패 도전" 정상현 자연환경유한회사 감독

"잘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립니다." 무등리그에서 로즈스나이퍼스를 꺾고 우승한 자연환경유 한회사 야구단의 정상현(44)감독은 우승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1회와 2회와 각각 6점과 7점을 뽑아 초반부터 승기를 잡은 자연환경유한회사는 끝까지 방심 하지않고 17대로 2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무등기 대회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정감독은 "경기 전 선수들에게 항상 하던데로 집중하자고 말했는데 선수들이 그대로 따라줬다. 팀원들의 실력을 의심 하지 않고 믿었기에 값진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자연환경야구단은 2012년 준우승, 2013년 우승, 지난해에도 우승을 차지한 무등기 대회를 대표하는 강팀이다.

정감독은 "다른 팀과 다르게 끈끈한 팀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려고 무등경기장을 찾아왔다"면서 "앞으로도 오늘 경기와 같이 짜임새 있는 공격적인 야구를 펼쳐 팀원들과 내년에도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무등리그 자연환경유한회사



MVP 신경수

"마음 비우고 타석에 임했는데 대회 최우 수선수까지 차지해 감개가 무량 합니다."

무등리그 최우수선수는 자연환경유한 회사 야구단의 신경수(32)에게 돌아갔다. 이날 신경수는 결승전에서 5타수 4안타를 기록하며 불 붙은 타격감을 선보이며 팀이

면접수차로 우승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신경수는 "결승전인 만큼 상대도 긴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초반부터 몰아부치자"라고 팀원들에게

잡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시절 야구선수를 꿈꿨지만 집안 사정상 꿈을 접었던 신경수는 지난 2011년 다시 방망이를 잡고 사회인 야구를 시작 해 이날 MVP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었다.

말했다. 그는 이어 "1회와 2회 때 6점과 7점을 기록해 승기를

야구선수의 꿈, 사회인야구로 풀다

신경수는 "호흡이 척척 맞는 지금의 팀 분위기를 이어가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만들어 내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